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7.3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부분적 중단 제안(7.28)

-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응해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. 중단 대상은 유럽혁신위원회(EIC) Accelerator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내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에 한정
- 집행위는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휴전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인도적 지원 합의를 이행했으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
- 제안된 일시 중단은 표적화되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이며, 이스라엘 대학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음

○ ERC 위원장 임기 단축 제안에 연구계 강한 우려 ... 연구기관들, 집행위 제안에 반발(7.24)

- 집행위는 2028~2034년 R&I 프로그램 제안서에서 유럽연구위원회(ERC) 위원장 임기를 2년(1회 연임)으로 단축 제안
- 과학계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ERC는 과학계 주도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반발하였으며, 연구기관 그룹도 동 제안에 우려 표명

○ 유럽연합 이사회, 2026~2027년 유라툼 프로그램 연장 승인(7.24)

-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~2027년 유라툼(Euratom)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
- 2026~2027년판은 EUROfusion(핵융합), EURAD(폐기물 관리), PIANO FORTE (방사선 보호), CONNECT-NM(핵 물질) 등 유럽 공동 자금 파트너십을 지원
- 또한, 민간 파트너십과 유럽혁신생태계를 통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,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대한 업계의 참여 촉진 예정

- (기타) ▲Erasmus+, 고등교육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173개 신규 프로젝트 선정 (7.24) ▲EIC, ARPA 모델 기반 신규 자금지원 제도 시범 도입(7.24) ▲유럽경제 사회위원회(EESC), 연구혁신 투자 촉진 위해 EU 재정적자 규정 개정 촉구(7.24) ▲호라이즌 유럽 2026~2027 보건 클러스터 예산 축소(7.28)